

# 참 아름다운 나눔 이야기

아름다운가게가  
잘 알 수 있는  
지역 밀착형 나눔



아름다운가게가 잘 해야 하는 사회 공헌형 나눔



방글라데시 건물붕괴사고 긴급지원  
필리핀 태풍 하이옌 긴급구호

12,800,619점의  
기증품



16,305명이 함께한  
725,381시간의  
자원활동



2,284,206명의  
구매천사



117개의  
아름다운가게  
전국매장

아름다운가게가 잘 할 수 있는  
자립 지원형 나눔  
공익상품 | 뷰티풀펠로우



숫자로 보는 연간나눔

아름다운가게



펴낸날 2014년 5월 15일  
발행인 홍명희  
펴낸곳 아름다운가게  
기획 아름다운가게 홍보팀  
디자인 디자인 브릭스  
주소 133-847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362(용답동)  
전화 1577-1113  
팩스 02-730-0525  
홈페이지 [www.beautifulstore.org](http://www.beautifulstore.org)

〈참 아름다운 나눔이야기〉는 아름다운가게를 통한 변화, 아름다운 사람들, 그리고 지난 1년간의 나눔성과를 담은 아름다운가게 간행물로, 매년 상반기에 발행됩니다.



참  
아름다운  
나눔  
이야기



## 목차



### 아름다운가게가 잘할 수 있는 자립 지원형 나눔

- 08 공익상품
- 10 뷰티풀펠로우
- 14 지식공유사례



### 아름다운가게가 잘 알 수 있는 지역 밀착형 나눔

- 18 2014 아름다운나눔보따리 현장후기
- 28 2014 아름다운나눔보따리 테마배분
- 30 아름다운희망나누기
- 36 아름다운나눔장터
- 38 네팔 아름다운도서관
- 42 나마스페겐지스 프로젝트



### 아름다운가게가 잘 해야 하는 사회 공헌형 나눔

- 46 방글라데시 건물붕괴사고 긴급지원
- 48 필리핀 태풍 하이옌 긴급구호



### 참여자 이야기

- 52 아름다운가게 최연소 기부자
- 54 놀라운하루
- 56 자원활동가



### 숫자로 보는 연간나눔

- 60 2013년 나눔성과



### 아름다운가게 소식

- 66 주요 행사 소식

## 인사말

생활 속 실천을 통한 우리의 나눔이 어느덧 열한 번째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지난 한 해, 어김없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지속적인 나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지역 사회 중심의 나눔, 우리가 잘 해야 하는 긴급 지원 활동을  
기반으로 한 사회공헌형 나눔 등 아름다운가게이기 때문에, 아름다운가게이므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아름다운가게가 이러한 중요한 성과들을 이뤄낼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아름다운가게에 무한한 애정을 보여주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 안에 실린 약 41억 원이라는 숫자는 단지 나눔 액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가족 여러분들이 기증해주신 소중한 물건, 자원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나눠주신 귀중한 시간 등,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어주신 사랑이 스며있습니다.

아름다운가게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곁에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아름다운가게 이사장 홍명희

홍명희

## 나눔 문화를 만드는 아름다운가게

아름다운가게는 지난 11년간 시민과 자원활동가의 참여를 통해 공익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돕는 나눔 문화, 환경을 생각하는 순환 문화, 착한 구매를 하는 소비 문화, '나보다'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 문화는 모두 아름다운가게가 추구하는 공익 문화입니다. 이러한 공익 문화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회 문제를 함께 풀어보고자 노력했던 시민과 기업, 기관, 단체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행물 '참아름다운나눔이야기'는 참여가 만들어 낸 나눔 문화를 이야기하는 공간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던 물건을 기증했을 때의 마음, 근사한 돌잔치 대신 자식에게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선물하고 싶어 기부했을 때의 마음, 쉬는 주말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이라며 남들 모르게 자원활동에 몸과 시간을 바쳤을 때의 마음, 이런 마음으로 뭉쳐진 나눔 문화의 씨앗들을 소개합니다.

또한 지난 11년 간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뿌려진 씨앗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한 모습과 오랜 기간 성숙해 발화한 나눔 문화의 현장을 소개합니다. 설날 전 국내 5,000여 가구의 이웃 홀몸어르신을 돕기 위한 11번째 현물 나눔, 해외 빈곤국가의 어린이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서관을 만들어 제공하는 활동 등 '나눔'이 '문화'로 자리잡아 가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변화를 위해 우리가 만들고 있는 나눔 문화가 앞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우리 생활 속 깊은 곳에 자리잡길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나눔과 잘 알 수 있는 나눔, 잘 해야 하는 나눔이 무엇인지 찾아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아름다운가게가 만들어 낼 공익 문화, 그리고 이를 위해서 도전하게 될 우리들의 아름다운 변화 과정에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기대해 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나눔액 수치는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정보입니다.

※ 나눔 이야기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 11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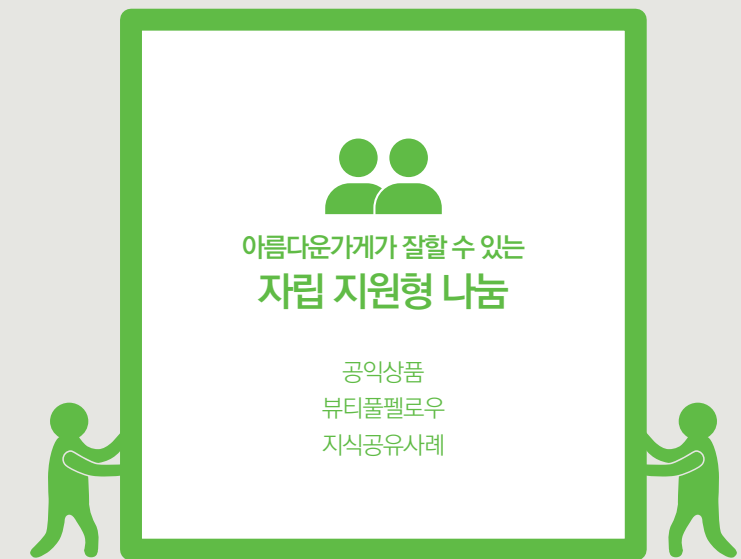


아름다운가게의  
자원활동가가 되어주세요!

자원활동  
및  
기증 문의

대표번호  
**1577-1113**  
안국점 배정번호  
**(02) 736-0660**

운영시간 10:30~20:00 (매주 월요일 휴무)  
매일 무료, 직접 기증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 공익상품

## 구매가 곧 나눔이 되는 아름다운 소비

아름다운가게 공익상품팀 윤여림팀장

아름다운가게 공익상품이란 사회적기업, 공정무역, 직업재활, 장애인자립장, 지역자활, 친환경, 공동체 등의 상품으로써 시민들이 이를 소비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우리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상품을 말합니다. 공익상품이 다양해지고 개발과 생산 및 유통이 활발해지면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규모 비영리 단체들이 보다 수월하게 자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풀뿌리기업의 활성화나 저개발국가 생산자의 경제적 자립이 가능해지고,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등 사회전체에 공익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전국의 아름다운가게 매장에서 만나실 수 있는 다양한 공익상품을 구매하시면, 구매를 통해 나눔을 실천할 수 있으며 더불어 생산자들의 성장과 자립을 도울 수 있습니다.

## 아름다운가게 공익상품 원칙 네 가지

- 1 친환경상품 소비를 권장합니다.
- 2 공익상품 판매를 통해 비영리 자활단체, 공동체 자립을 지원합니다.
- 3 직거래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 4 공정무역 상품을 통해 저개발국 생산자들과 함께합니다.

아름다운가게 공익상품팀은 2011년 'GS샵과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 만들기' 홈쇼핑 기부방송을 통해 홈쇼핑 방송을 했습니다. 이날 방송되었던 사회복지법인 다운회의 '과일창'은 방송 1회 만에 전년 매출의 약 45%를 달성하는 이례적인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매출증가, 방송을 통한 인지도 상승과 홍보 효과는 물론이고 단체 근로장애인들의 자긍심 고취라는 돈으로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얻기도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GS샵 상품개발비로 '이룸의터' 근로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맘다운' 순면 물티슈를 출시하고 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했습니다. 2011년 방송과 같이 효과를 봤고, 또한 공동으로 상품을 개발하여 런칭하고 판매까지 하는 전 과정을 통해 함께 하는데 있어서 그 의미가 더욱 특별했습니다.

2013년 GS샵,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아름다운가게는 업무협약을 통해 홈쇼핑기부방송, 사회적기업 상품 판로확대 및 상품개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총 10여 개 사회적기업의 상품을 총 7번의 기부방송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수경(마리아) 수녀 / 위캔센터 원장

위캔센터는 2001년에 개원한 지적 장애인들의 회사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이 근로를 통해 자립을 해나가려는 곳이죠. 남들이 봤을 때 위캔은 작은 곳일지 모르지만, 이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여기가 매우 크고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들이 입버릇처럼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위캔 다니는데, 위캔 몰라요?"

위캔은 꿈이 있습니다. 더 많은 매출이 일어나 더 많은 근로인을 고용하고 싶습니다. 일하기 전, 매일 모두 모여 아침마다 'We Can'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중증 장애인은 힘이 없지만, 여럿이 함께이면 할 수 있습니다. I Can이 아닌 We Can입니다. 더 많은 이가 사랑해줄수록, 더 많은 기회가 펼쳐집니다.



김세균 / 위캔센터 근로장애인

회사에서 동료들과 함께 일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월급은 받으면 모두 적금을 합니다. 일한 제빵기술을 배워서 제빵사가 되는게 저의 꿈입니다.

## 내가 아니라 우리라서 할 수 있어요

조윤희  
/ 이룸의터 생산총괄부장

저희 '이룸의터'는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입니다. 장애인들이 직접 출퇴근을 통해 일을 하고, 이를 통해 이곳에서 경제적 독립과 자활을 꿈꾸

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들은 정해진 근무 시간에 출근해서 퇴근하기까지, 정당한 노동을 통해 한 달을 채우고 손에 쥐는 월급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들이 쌓여, 언젠가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감에 행복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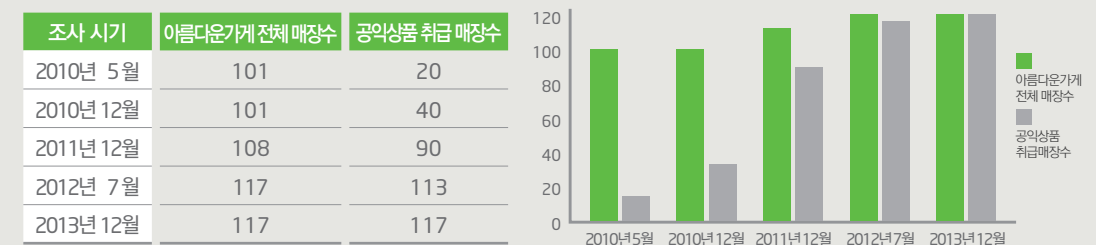
박주영  
/ 씨튼베이커리 근로장애인

씨튼베이커리에서 곡물세척기를 담당하고 있고, 일한 지 3년 되었습니다.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고, 매일 나갈 수 있는

회사가 있다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우선 부모님께 드리고, 남은 돈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단체에 기부도 합니다.

공익상품 취급 매장 증가 추이



## 뷰티풀펠로우

## 사회혁신기업가들의 키다리 아저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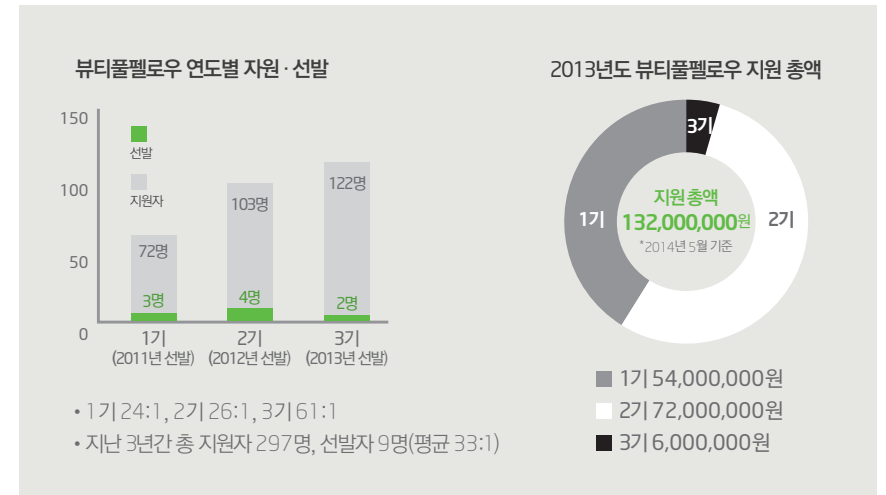
아름다운가게 사회적기업센터 허경태간사

2002년 시작된 아름다운가게는 10주년을 맞이하며 아름다운가게의 쓰임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1년 '뷰티풀펠로우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뷰티풀펠로우 사업은 제2, 3의 아름다운가게를 만들 사회혁신기업가들을 발굴·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아름다운가게는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경험들은 아름다운가게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가게는 사업은 실패할 수 있어도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신뢰를 통해 아름다운가게가 성장한 것처럼 저희도 신뢰를 기반으로 뷰티풀펠로우들과 함께 합니다. 뷰티풀펠로우에 'fellow'라는 명칭이 붙은 이유 역시 아름다운가게가 이들을 수혜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별다른 증빙자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150만 원을 매월 지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도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볼 수 없다는 경험을 통해 이 프로그램을 3년간의 장기적인 지원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지원 방법은 다른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과 크게 차별되는

2014년 1분기 보고회 @홍동범업도서관 홍순명 관장님과 함께 : (왼쪽 윗줄부터) 박형일 펠로우, 강성태 펠로우, 진재선 펠로우, 김수열 처장, 전상준 국장, 홍순명 관장, 박정미 펠로우, 유호근 펠로우, 류은화 팀장 (아랫줄) 허경태 간사 유덕수 펠로우, 김하나 간사, 박정화 펠로우



것입니다. 이런 파격적인 조건 때문에 5차에 걸친 꽤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선발합니다. 이렇게 선발된 펠로우가 현재까지 총 아홉 분이 계십니다.

뷰티풀펠로우에 선발되면 협약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뷰티풀펠로우'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실질적인 지원이 있지만 많은 펠로우들은 "지원금보다 더 큰 이익은 아름다운가게가 인정한 사회적기업가라는 사회적 인정입니다." 라고 말하며, "처음에 거래처나 파트너와 만날 때 별 호응을 보이지 않다가도 제가 뷰티풀펠로우인 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태도와 눈빛까지 달라지더라고요, 그 이후 부터는 일이 꽤 잘 진척되는 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지원들까지 더해져 펠로우는 3년간 사회문제 해결과 혁신을 위해 사업에 정진할 수 있게 됩니다.

아름다운가게는 앞으로도 사회혁신기업가들과 함께 아름다운세상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뷰티풀펠로우가 말하는 뷰티풀펠로우 사업이란?



**박정이 펠로우** / 오방놀이터 대표

뷰티풀펠로우 사업은 상호간의 신뢰를 만들어가며 그것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여 결국 사회적 경제의 안전망을 만들어 줍니다. 펠로우십이 주는 사회적 책임감으로 인해 무엇보다 사회적 문제를 누구보다 먼저 고민하게 합니다. 또한 아름다운가게가 펠로우에게 주는 멤버십, 그리고 펠로우간에 주고 받는 따뜻한 멤버십이 상호작용하여 더 큰 힘을 발휘하게 해줍니다.

「오방놀이터를 통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가족놀이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회적기업가



**유덕수 펠로우** / 열정대학 대표

뷰티풀펠로우 사업은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변화의 씨앗이자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물과 거름을 지원하는 거죠.

「20대들이 자신만의 천직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개인의 성향과 진로를 찾아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공존 학교'를 운영중인 사회적기업가



**박형일 펠로우** / 협동조합 청춘 대표

기존의 지원 방식은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의 결과를 평가하고 요구하지만 뷰티풀펠로우사업은, 사업 이전에 사업을 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가진 '뜻', 그리고 그 사람의 성장과정을 지지하고 지원합니다.

뷰티풀펠로우를 통해, 우리 사회가 당장의 사업 결과가 아닌 '사람'을 지원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앞으로 그런 문화나 시스템이 지금보다 훨씬 풍성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층의 유입과 정착을 통한 농촌지역 청년 생태계 복원, 여러 세대가 어우러지는 삶의 생태계 복원을 위한 청년들을 위한 협동조합 교육농장을 운영중인 사회적기업가



**박정화 펠로우** / ㈜인디씨에프 대표

뷰티풀펠로우는 진심과 가능성을 보고 선발된 사회혁신가에게 생활비와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자유로운 마인드로 최대한 사업에 집중하게 하고, 사회혁신가의 신념을 응원하는 대한민국 유일한 지원사업이죠.

「광고를 통해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이나 중소기업 등의 광고를 제작하는 광고제작사를 운영중인 사회적기업가



**유호근 펠로우** / 희망동네 사무국장, 희망동네협동조합 사업단장

뷰티풀펠로우 사업은 '화분' 같아요. 화분에 씨를 뿌리면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죠. 과연 내가 제대로 심은 것일까? 과연 싹이 날까? 그러나 물을 주고 햇볕을 쬐고 정성을 들이면 싹이 트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물론 가끔 싹이 나지 않고 죽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싹을 심지 않을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싹을 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야 하는 것처럼 뷰티풀펠로우 사업은 사회혁신의 에너지를 키워내는 화분이라 생각합니다.

「동작구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 풀뿌리단체로 '우리의 소비를 우리의 복지'로, 협동조합을 통한 더불어 행복한 지역경제공동체 만들기라는 미션으로 동작구를 협동조합 일번지로 만드는 지역활동가



**강성태 펠로우** / 공신닷컴 대표

아름다운가게의 뷰티풀펠로우 사업은 사람에 의한,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실패가 허락되지 않는 이사회에서 오히려 실패마저도 지원해주는 사업, 궁극적으로 더 큰 사회 변화를 일으킬 사업이죠.

「빈부와 지역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에게 공신 멘토 한 명씩을 만들어 준다는 미션으로 대한민국의 교육 불평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기업가



**유정호 펠로우** / ㈜소셜코어 대표

뷰티풀펠로우는 내 안의 CCTV를 만들어 줍니다. 크게 제제하거나 요구하는 건 없어도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하나의 예로, 차량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무단횡단 못하게 만듭니다. 난 뷰티풀펠로우니까.

「고학력 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특화된 출판시스템 개발과 운영을 하는 회사를 운영중인 사회적기업가



**김윤정 펠로우** / 풀랑풀랑 대표

뷰티풀펠로우 사업은 사업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하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사업이고 무려 3년이나 지원해줍니다.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것 같아요.

「동물과 사람의 관계 변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미션으로 각종 교육 및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를 운영중인 사회적기업가



**진재선 펠로우** / 이르미협동조합 대표

뷰티풀펠로우 사업은 제 사업에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을 때 뷰티풀펠로우 사업이 인정해주었고, 그 후부터는 다른 곳에서도 제 사업을 믿어줍니다. 한 번에 신뢰가 쌓였죠.

「지역의 대안적 지역공동체 경제 조직화를 통한 지역 귀농귀촌자의 정착지원을 하는 구례의 협동조합을 운영중인 사회적기업가

## 지식공유사례

## 아름다운가게의 재사용자선가게

아름다운가게 나눔사업팀 김보람간사

아름다운가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형의 자산을 세계 다양한 파트너들과 공유합니다. 특히 재사용자선가게 분야의 노하우를 가지고 개점한 아름다운가게 LA지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개점 지원, 2009년부터 이어져온 필리핀 재사용 자선가게인 카리타스 마닐라와 파트너십을 통해 꾸준한 지식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 필리핀 재사용자선가게 - 세군다마나

"필리핀 재사용자선가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물류·재고 관리, 가격 책정, 마케팅, 봉사자 관리 등을 배우러 한국에 왔어요."

벚꽃이 만개했던 2013년 4월, 아름다운가게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메이와 힐다는 필리핀의 자선단체 '카리타스 마닐라' 소속으로, 필리핀 도시빈민에게 교육·보건서비스·긴급구호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부터 아름다운가게 모델을 본떠 현지 나눔가게 '세군다마나'를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아직은 척박한 필리핀의 기부문화와 자원 부족으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은 많지만, 아름다운가게의 도움으로 세군다마나의 운영에 있어 시행착오를 많이 줄였다는 메이씨. "지금은 매장이 13곳뿐이지만, 한국에서의 배움을 토대로 언젠가는 100번 째 가게를 열고 싶어요."

힐다씨는 그동안 3차례 한국을 찾아 아름다운가게의 사업 노하우를 꼼꼼하게 배워 13번째 매장까지 개점한 세군다마나에 이어서, 'Margins'라는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아름다운가게의 에코파티메아리와 공익상품에서 영감을 얻어 'Margins'라는 브랜드를 론칭 하였습니다. 필리핀 내에서 버려지는 자원으로 가방, 액세서리도 만들고 지역 내 취약 계층이 만든 다양한 상품도 취급하고 있지요."

이런 지식 나눔뿐 아니라 양 단체는 MOU 체결을 통해 긴급재난 발생 시 상호협력하기로 약속했고, 2013년 10월 아름다운가게는 카리타스 마닐라와 함께 보홀 지진 피해자를 위한 의약품 및 위생 키트 보급 사업을 통해 1만 달러(한화 약 1천 백 만원)를 지원하였습니다.

##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아름다운가게는 2012년, 아름다운가게 LA지점을 시작으로 2013년 아름다운가게 인도네시아, 2014년 현재 태국의 자선가게인 Punkan 및 Change fusion과의 협력을 통한 지원 논의까지

해외 재사용자선가게의 운영 및 나눔 사업의 노하우를 다양한 해외 파트너 단체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해외 자선가게 모델을 참고하여 시작한 아름다운가게가 이제는 개발도상국과 우리의 노하우를 나눌 수 있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나눔과 순환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 더불어 아름다운가게가 가지고 있는 무형의 자원을 꼭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는 것, 더디지만 함께 멀리 갈 수 있는 방법 아닐까요?

2013년 4월 인천신- 아름다운가게 장한평 본부와 매장 둘러보는 모습



필리핀 긴급구호 1만 달러 지원 사진 @필리핀 마닐라 카리타스 마닐라 사무실 앞





아름다운가게가 잘 알 수 있는  
**지역 밀착형 나눔**

2014 아름다운나눔보따리 현장후기

2014 아름다운나눔보따리 테마배분

아름다운희망나누기

아름다운나눔장터

네팔 아름다운도서관

나마스페갠지스 프로젝트



## 2014 아름다운나눔보따리 현장후기 ①

## 기증보따리에서 나눔보따리까지

아름다운가게 홍보팀

아름다운가게는 2013년 10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약 2개월간 홀몸어르신을 돕기 위한 기증 캠페인 '아름다운기증보따리'를 전개했습니다. 1,311명의 일반시민들과 96개의 기업, 기관, 단체, 학교 등이 참여했고 배우 임정은씨가 캠페인 활성화를 위해 홍보대사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많은 기증자·기업·기관·단체 여러분의 도움으로 전국 홀몸어르신 5,000여 가구에 배달해드릴 나눔보따리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4년 1월 18일, 아름다운나눔보따리 행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아름다운가게 간사와 자원봉사자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눔보따리 패키지를 위해 참여했습니다. 이 안에 담긴 참여자 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차가운 홀몸 어르신 맥을 훈훈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2013년 10월 17일 기증의날 기념식, 홍보대사 임정은은 아름다운기증보따리 캠페인 기념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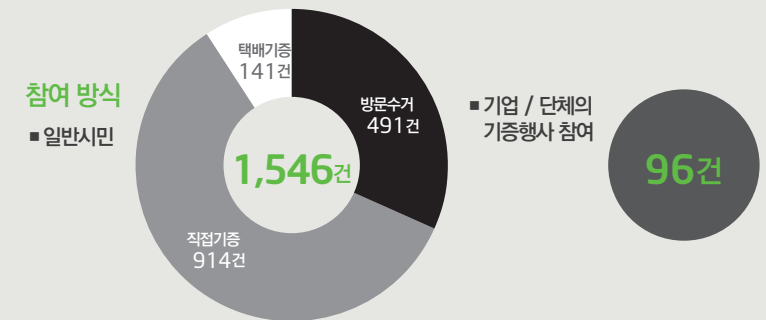
나눔보따리 안에 들어가는 생필품들 (기업 후원 물품)



2014년 1월 18일 아름다운나눔보따리 패키징 현장 (응답 되살람센터)

## 캠페인 기간 내(2013.10.17~2013.12.20) 전체 기증자 및 기증량

- 참여자 및 기증품 수 1,311명 (기증품 : 67,752점)
- 캠페인 기증품 수 16,903점
- 매장 별 행사 참여 기업 / 단체 96곳



## 캠페인을 통한 환경 및 나눔효과

- 환경효과 자원 재순환을 통해 자원을 절약하고 CO<sub>2</sub> 발생량을 감소
- 나눔효과 5,000여 가구 홀몸어르신을 지원할 수 있는 나눔보따리 (쌀, 생필품으로 구성된 현물 꾸러미) 자원 마련



## 2014 아름다운나눔보따리 현장 후기②

## 아름다운나눔보따리, 배달천사들을 만나다!

아름다운가게 홍보팀

제 11회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따뜻한 '그날'의 현장 대공개!  
매년 설날 일주일 전, 소외가정에 생필품과 쌀을 전달하고 더불어 서로 덕담도 나누는  
아름다운가게의 대표적인 나눔행사인 '아름다운나눔보따리'.  
사랑과 정성이 가득했던 그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1년을 기다렸어요!

전 날 내린 비 영향으로 유독 새벽 공기가 상쾌했던 2014년 1월 26일 일요일! 아름다운가게가 일 년을 기다려 맞이한 <2014 아름다운나눔보따리> 행사 당일 현장을 공개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한 이 곳은 상암 월드컵경기장 평화의 광장 현장입니다. 행사를 준비할 아름다운가게 활동가들이 현장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추위와의 싸움을 예감한 듯 다들 두꺼운 복장으로 오셨답니다.



드디어, 출발할 시간입니다. 배달천사들의 꼬리에 꼬리를 문 차량 행렬로 나눔보따리 행사의 대미를 장식할 순간입니다. 배달천사님들을 제외한 행사에 참석한 귀빈들, 모든 활동가들이 일렬로 서서 배달차량들을 배웅해 줄 때에는 모두가 한 마음인 것을 확인하는 드라마틱한 순간이지요.

배달에 참여해주신 전국의 배달천사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매년 아름다운나눔보따리에 더 많은 물품과 사랑이 전달되길 기대해봅니다.



현장 체질인 아름다운가게 활동가들에게 오늘의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스티커 부착'. 기증보따리 박스를 만들고 스티커를 붙여 부착해야 하는데 얼어 붙은 손 때문에 잘 떨어지지 않는 거죠. 배달천사님들 오시기 전에 빨리 붙여야 하는데, 마음만 급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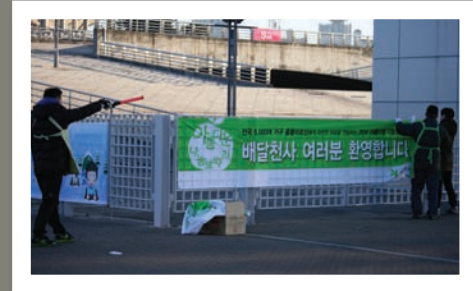


참석해주신 귀빈들께서도 힘이 나고 즐거운 인사말로 응원해주셨는데, 결국 모두 배달천사님들에 대한 감사와 안전운전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이번 년도에는 특히 현란한 춤사위로 차량들의 출발을 진두지휘하는 아름다운가게 신인 활동가의 활약으로 더욱 유쾌했습니다.



오전 7시 30분 즈음 주차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첫 배달천사 차량이 보입니다. 어둑어둑한 행사장에 제일 먼저 도착 하셔서 차량 위에 현수막을 붙이고 있는 활동가도 도와주시고, 여유로운 미소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차량들이 하나 둘 들어서기 시작하고, 행사장 주변에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엄마를 따라 일찍 나온 꼬마 친구들도 많았답니다. 따뜻한 곳에서 더 자고 싶었을 텐데 그 마음이 참 예쁘죠.



아름다운나눔보따리는 시민들의 기증품 판매 수익, 기업후원 등으로 마련됐으며 이렇게 구성된 나눔보따리는 가족 및 회사 동료들과 함께 해주신 배달천사님들, 평소 아름다운가게를 빛내주시는 활동천사님들을 통해 배달됩니다.



행사시작을 알리자마자, 이곳저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배달천사님들은 직접 배달할 나눔보따리를 곧바로 차에 실으셨습니다. 참 든든해 보이죠?



또한 현장에서는 배달천사들의 몸을 녹이기 위해 겨울철 대표 간식거리 호빵과 커피가 마련되었지요. 이것 역시 SPC에서 따끈한 '호빵'을, '아름다운커피'에서 향긋한 아메리카노를 후원해주신 덕분이었어요.(당일 호빵 판매 수익금도 역시나 모두 소외이웃을 위해 기부해주셨답니다^^)

## 2014 아름다운나눔보따리 현장후기 ㉓

특별한 배달천사들의 나눔보따리,  
현장방문기

아름다운가게 홍보팀

2014년 아름다운나눔보따리의 특별한 배달천사, 낯익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바로 MBC 아나운서 분들이시죠. MBC 신동진, 이성배, 이 진, 차예린 아나운서, 이렇게 네 분이 직접 배달천사로 나서주셨습니다. 평소 아름다운가게와 인연이 깊은 아나운서협회 측에서 이 날 행사 진행은 물론, 배달천사까지 동참해주신 거죠. 사진 속 보따리가 바로, 기증보따리 캠페인 시 마련된 재원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보따리 중 하나입니다.



종로구, 고급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선 길 너머엔 이렇게 가파른 언덕들이 줄지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2014 아름다운나눔보따리 행사 시, 수많은 보따리 중 하나가 배달된 집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말할 때마다 입김이 뿜어 나오는 매서운 날씨,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는 가파른 언덕을 오르고 나서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 흔한 이웃사촌 하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야, 사람들로 북적북적한 행복 가득한 집이 될 수 있을까요?

특별한 배달천사들이 방문한 첫 번째 집.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설 수 없을 정도의 비좁은 통로를 지나야만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 집에는 모녀 두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올해 아흔 여섯의 고령의 어머니와 그의 따님. 사진 속, 자주색 조끼를 입고 계신 분이 바로 이옥형(96) 할머니입니다.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할머니는 참 정정하셨습니다. 그래도 세월은 빗겨갈 수 없는 걸까요. 오래 전 받은 인공관절 수술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상태였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불편한 다리, 편안히 앉아계셨으면 했지만 할머니는 꽤 오랜 시간동안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와줘서 고마워."

할머니는 주로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다고 합니다. 함께 사는 따님은 한 푼이라도 벌여보고자, 식당 일을 하러 외출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마저도 매일 있는 일자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반가운 손님들, 당신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싶으셨던 걸까요? 할머니는 십사리 자리에 앉지 않으시고 한참을 가까이서 얼굴을 들여다보셨습니다. 다섯 명이 둘러앉으니 여유 공간 없이 꽉 차는 방 안. 모두 들어와 앉았는데도 할머니는 계속해서 두리번두리번, 한참을 서성이셨는데요. 알고 보니, 방이 비좁아 잠시 밖에 나가 서있던 활동천사님이 마음 쓰여 계속해서 살펴보고 계셨던 겁니다. 할머니는 집에 찾아온 모든 사람이 방에 들어온 걸 확인한 후에야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평생 먹어도 남겠네."

저희가 준비한 나눔보따리를 풀어본 시간. 보따리 안에 들어있던 물품 하나하나를 꺼내며 어떻게 쓰는 건지 확인하시고 매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네주셨던 할머니.

"고마워, 고마워" 고맙다는 말을 죽히 수십 번은 넘게 하셨습니다. 그 한 마디, 한 마디에서 진심이 물씬 느껴졌는데요. 뭐가 그리 고마우셨던 걸까요.

사실 매년, 어르신들께 나눔보따리를 드리면서 한편으론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더 큰 나눔을 드리지 못해서, 더 자주 드리지 못해서. 그게 혹시나 마음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처럼 비춰지진 않을까, 우려를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다행히도 물품 하나하나를 직접 보고, 사용처를 저희에게 물어 확인하시며 무척 즐거워하셨습니다. 생활 전선에서 반드시 필요한 생필품은 어르신들에게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르신의 손을 한 번 더 잡아드리고, 함께 눈을 맞추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닐까요?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5.1%로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하는데요. OECD 평균보다 무려 3.3배나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또한 70세 이상 노인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84.4명으로, 이 역시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합니다. 더 이상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전부가 해결해야 하는 숙제로 남아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지독한 가난보다도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요즘 많은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너무 외로워서' 119에 전화를 걸었다는 한 할머니의 사연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사람만 왔다가도 반갑고 좋다는 할머니

님의 목소리에서는 고독이 사무쳐 있었습니다. 사람이 그리워, 누군가의 음성이 그리워, 어디론가 무작정 전화를 걸고 싶은 마음. 아직 젊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는 감정일 테죠.



나눔보따리 박스 위에 수북이 쌓여있던 과일과 초콜릿과자, 방 안 깊숙이 있던 할머니 간식인데요. 손님들 대접해야 한다며 정말 많은 양을 꺼내 준비해주셨습니다. 마주한 사람들의 입속에 감 한 쪽이 전부 들어간 것을 꼭 확인하셨던 할머니.

혹시 이런 덕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딱 100년 썩만 건강하게 살아."

모두의 손을 한 번씩 꼭 잡아주시며 건넨 인사 말씀. 작고 주름진 손은 참 따뜻했습니다. 아나운서님들뿐만 아니라 함께한 간사들의 가방에도 꼭꼭 넣어 챙겨주시던 할머니의 초콜릿 과자. 행여나 할머니의 간식을 우리가 빼앗는 건 아닐까, 계속해서 사양했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늙은이 혼자 이걸 다 어떻게 먹어, 나눠 먹어. 응?" 라고 하시며, 모두에게 공평하게 하나씩 나눠주셨습니다.

"선생님은 과자 받았어?"

"네, 할머니. 저 가방에 잘 챙겨놔어요. 꼭 먹을게요."

"응응, 그럼 됐어."

혹시, 지금까지도 '나눔'이 지금 당장하기엔 부담스러운 것, "이 다음에 돈 많이 벌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할머니의 '작은 나눔'이 큰 깨달음을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도 지금과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고맙습니다.

## 2014 아름다운나눔보따리 테마배분

## 외로움은 잠시 잊고, 웃음꽃 피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운가게 나눔사업팀 조현숙 간사

아름다운가게는 매년 설날 전 '나눔보따리' 사업을 통해 소외 어르신을 위로하고 지원하는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은 이와 연계하여 소외 빈곤 노인 대상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회복지단체에 빈곤어르신을 위한 정서, 교육, 의료, 문화 등의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총 21,918,200원을 8개 기관의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배분하였습니다.

## 빈곤어르신 지원사업

'노인의 4고(苦) - 건강, 경제, 역할상실, 소외감을 고려하여 대상의 특화, 프로그램의 참신성, 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지원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아름다운가게에서 선정된 프로그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65세 이상 자살률이 가장 높은 1위 ▶ 주요 원인은 생활고
- 테마공모사업 배분액 (총 21,918,200원)

| 기관명                  | 구분                        | 사업명                                                                                  | 배분액       |
|----------------------|---------------------------|--------------------------------------------------------------------------------------|-----------|
| 새움터                  | 성매매 노인<br>특화서비스,<br>동료상담사 | 동료상담원을 활용한 현 지원체계의<br>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고령의 성매매<br>피해 여성 동절기 영양 돌봄 및 간병서비스                 | 4,467,200 |
| 광장<br>종합사회<br>복지관    | 건강지도                      | 지역사회 건강탐방 활동을 통한 빈곤<br>어르신들의 건강서비스 접근성 증진 사업<br>'광진구 건강탐방 프로젝트 -<br>우리 동네 건강 퍼즐 맞추기' | 2,000,000 |
| 청솔재가노인<br>지원서비스센터    | 죽음준비 프로그램                 | 재가노인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br>'삶과 죽음에게 길을 묻다'                                                  | 3,591,000 |
| 김포시노인<br>종합복지관       | 빈곤노인<br>부부관계성 회복          | 소외, 빈곤 부부 어르신 관계증진 프로그램<br>'우리(또)(결)혼했어요'                                            | 5,000,000 |
| 광주재가노인<br>지원서비스센터    | 독거노인 사회성<br>향상 프로그램       | 재가빈곤어르신의 외로움 극복과<br>자존감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행복노후'                                           | 1,860,000 |
| 단원구<br>노인복지관         | 조손 가정<br>관계회복, 대보름        | 조손 가족 기능회복 프로그램<br>'우리는 하나'                                                          | 1,000,000 |
| 중원노인<br>종합복지관        | 떡국/만두 나눔                  | 설날맞이 따뜻한 떡국 나눔 행사                                                                    | 2,000,000 |
| 고양시원당<br>종합사회<br>복지관 | 제과제빵교육,<br>사회참여봉사         |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의 자기 효능감<br>향상을 통한 건강한 노년 만들기 프로그램<br>'제빵나눔 빵긱빵긱'                      | 2,000,000 |

## 어르신들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자신감을 얻으셨습니다

-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 '제빵나눔 빵긱빵긱'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

김미현 사회복지사 /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

제과제빵 강사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던 어르신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다음 순서는 이거야", "형님은 다리가 아프니까 앉아서 이걸 하고 이 건 내가 할게" 라며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눔 활동도 처음에는 완성된 빵을 챙겨가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던 어르신들이 나중에는 본인의 몫을 포기하고 더 많은 빵을 나눠주자고 먼저 말씀하시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지역사회 나눔 활동이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됩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의 경험으로 저소득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한 노년을 유지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조부모님들과 손주들이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 단원구노인복지관 '우리는 하나'



단원구 노인복지관

최보혜 사회복지사 / 단원구노인복지관

서로에게 바라는 소원을 이야기하며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소 씩스러움이 많은 손녀는 "할아버지가 자신과 함께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며 '담배 줄이기'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를 소원으로 말했습니다. 또 할아버지는 걱정하지 말라며 오래오래 곁에서 지켜주겠다는표현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했습니다. 조손 가족 기능회복 프로그램은 조부모에게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감소해주며, 아이들에게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조부모로 인식시켜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 아름다운희망나눔기①

## 아름다운희망나눔기 다시, 희망을 꿈꾸다

아름다운가게 나눔사업팀 강현일간사

아름다운희망나눔기 사업은 매장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가게의 대표적인 배분사업입니다. 아름다운가게는 아름다운희망나눔기 사업을 통해 우리 주변의 소외된 계층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단체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진석이와 병원 가는 일이 조금은 수월해졌어요

진석이(가명, 12세 남)는 아버지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진석이가 워낙 어릴 때부터 가정을 멀리하고 빚을 남겨 놓은 채, 집을 떠났기 때문인데요. 홀로 남은 엄마는 진석이를 잘 키우기 위해 양장점을 운영하셨지만 2012년 가게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빚이 늘어나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가게 문도 닫

고 집도 잃은 상황에서 진석이에게 '급성항문열구'라는 질병까지 발병했고, 정서불안 증세도 나타났습니다.

정보조금에 의지하여 두 식구가 생활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엄마의 몸과 마음도 치질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게다가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급성항문열구'라는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드는 약값을 지불하는 것과 일주일에 세 번 이상 멀리 있는 병원까지 가야 하는 일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또한 건강 상 도보와 버스를 이용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라, 택시를 타고 가야 하는데 그 교통비 역시 생계를 위협해 왔습니다.

아름다운가게의 생계비 지원으로 엄마는 진석이와 택시를 타고 병원 가는 일이 수월해졌고, 부담스러운 치료비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진석이가 회복하여 엄마와 함께 웃음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드림치는 것을 좋아하는 다운이의 꿈은 음악가가 되는것입니다

김다운(가명, 17세 남) 학생은 또래 아동들과 달리 그늘지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다운이의 부모님은 운영하던 공장이 부도를 맞아 7년 전에 이혼을 하였고, 어머니는 자녀들의 생계비 마련을 위해 밤낮으로 궂은 일을 하다가 당뇨병에 걸려 생계비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나눔기 사업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김정민 학생과 가족이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소심하고 자존감이 낮아 매사에 자신감이 부족하고 타인과 눈을 마주치기도 힘들어하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음악을 들으며 홀로 외로움을 달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아들이 악기를 배운다면 성격에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고, 아름다운가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결과, 김다운 학생은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인정받는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아이로 변화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밴드를 결성하여 저녁 늦게까지, 그리고 주말과 휴일에도 쉬지 않고 드럼을 연습하고, 다양한 학교 행사에서 실력을 뽐내며 음악가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음악 외 전반적인 학교 공부에서도 자신감을 갖게 되어 교내 컴퓨터 대회나 백일장에서 상장을 받는 등 누구보다 성실하게 노력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 영민이가 하루빨리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영민(가명, 4세 남)이는 2011년 11월에 출생한 후, IPEX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IPEX 증후군은 발생사유가 알려지지 않은 면역 결핍질환으로 유전자 돌연변이로 발생하는 희귀난치병이지만 아직까지 희귀난치병으로 등록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이 큰 질병입니다.

또한 면역력 유지를 위해 입·퇴원을 반복하며 1년의 반 이상을 병원에서 보내고 있어, 형편이 어려운 영민이 부모님은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 2세의 영민이가 매일 6시간씩 재활치료를 받는 모습을 보며 부모님은 작게나마 희망을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이 사연을 접한 H사는 행사 당일 수익금을 영민이에게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내 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영민이의 사연을 임직원들에게 알리며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이런 H사의 노력은 소중한 결실을 맺어, 예상치의 약 2배에 달하는 634만원을 영민이의 의료비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영민이가 겪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 번 힘을 내고 있습니다.

영민이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 군복을 벗고 민간 기업으로 이직한 아버지. 베타트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고민 끝에 출산한 영민이와 그로인해 챙겨주지 못한 첫째 아들에게 항상 미안함을 느끼는 어머니. 아직 한창 어리광을 부릴 나이이지만, 세 살 어린 연약한 동생에게 부모님을 기꺼이 양보하는 형. 이런 아름다운 가족들과 주위의 좋은 이웃들에 둘러싸인, 작은 몸으로 매일 6시간씩 재활치료를 받는 용감한 영민이가 언젠가 난치병에서 회복되어 건강한 청년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 아름다운희망나누기②

## 어르신들의 특별한 가을 나들이

아름다운가게 나눔사업팀 강현일간사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들과 함께 한 가을 나들이입니다. 60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저소득 소외 어르신들은 일반 어르신들에 비해 경제, 건강, 여가 등의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에 대한 사회적 지지체계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나들이를 통해 어르신들께서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기시고 어르신들간의 화합, 그리고 봉사자들과의 친목을 도모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홀로 생활하시는 60세 이상의 저소득 소외 어르신들께서는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지 못하고 계십니다. 여가를 즐기고 싶은 마음도 굴뚝같지만 주위의 환경이 여의치 못한 것입니다. 또한 어르신들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 또는 배우자가 없으며, 사회적인 지지체계 또한 부족합니다. 종로종합사회복지관의 어르신들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복지관이 위치한 창신동 및 송인동의 지역특성상 어르신들의 연령이 높고, 학력과 소득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년기의 여가활동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사회적 접촉의 기회 제공, 삶에 대한 만족감의 향상 등 다방면에서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아름다운가게는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들의 나들이를 지원하였습니다. 선선한 가을날, 종로종합사회복지관의 65명 어르신들과 5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어르신들은 무료한 일상에서 벗어나 공기 좋은 곳에서 꽃과 나무를 보며 활기를 찾으셨고, 몸과 마음의 여유를 느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원 봉사자들과 함께 소규모로 조를 편성하여, 더욱 편하게 나들이를 즐기셨습니다.

비록 하루 동안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르신들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는 다르게 행복 가득한 순간들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홀로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자원 봉사자들, 다른 어르신들과의 행복한 추억을 만드셨고 삶의 만족감과 활력을 되찾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나들이를 통해 종로종합사회복지관의 어르신들께서 집간이나마 경제적, 정서적 소외감을 해소하시고, 삶의 활력을 찾으셨길 바라며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희망합니다.

2013년 희망나누기 지원내역

■ 대상: 개인 776명, 단체 140개 ■ 금액: 1,904,827,985원

## 아름다운희망나눔기 ③

##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와 맛 찾기

아름다운가게 나눔사업팀 강현일간사

늘꿈터청소년희망공부방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맛 찾기'와 '올바른 먹거리' 교육입니다. 요즘의 학생들은 패스트푸드와 같은 자극적이고 획일적인 맛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맛에 적응이 되어 건강한 먹거리를 맛이 없다고 생각하고 꺼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먹거리에 대해 소개하고, 평소에 많이 접해보지 않은 슬로푸드를 체험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되찾아주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현대 사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극적이고 획일적인 맛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간편하고 저렴한 패스트푸드에 이미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청소년기에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성인이 된 후에도 잘못된 식습관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청소년기의 올바른 먹거리 교육은, 보다 나은 미래의 음식 문화를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가게는 이러한 뜻을 함께하는 늘꿈터청소년희망공부방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늘꿈터청소년희망공부방에서는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되찾아주기 위하여 공부방의 학생 75명들에게 5주 동안의 '맛 찾기'와 '올바른 먹거리'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첫 시간은 아이들에게 음식 조리的重要性을 일깨워 주는 조리 교육시간과 아이들이 직접 현미김밥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진행하여 아이들이 교육에 흥미를 느끼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식재료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며 아이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채식을 소개하고, 제철재료를 이용한 비빔밥을 만들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써, 아이들에게 육식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전달하고 채소 샐러드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우리 주변의 음식에 항상 빠지지 않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교육하고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는 과일 잼을 만들어보는 시간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아이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위하여 명상을 통한 음식 먹기를 소개하고 실천해보고, 5주간의 교육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주 동안의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음식과 정크푸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고, 채식이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으며, 더불어 건강한 조리법까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먹거리 문화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아름다운나눔장터

## 지난 한해 마음 따뜻한 장돌뱅이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름다운가게 나눔장터팀

2013년 기부 나눔 주제는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의 양식 지원'입니다.  
지난 한해 마음 따뜻한 장돌뱅이 여러분 덕분에 독섬 아름다운나눔장터에서 47,895,152원의 소중한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정성으로 모아주신 기부금이 어떤 분야에 얼마나 값지게 사용되었는지 배분내역을 알려드립니다.

## 나눔테마1. 방학 중 급식지원

지역사회 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들의 건강과 결식예방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을 함으로써 아동, 청소년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아동,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협의단체** 전국지역아동센터협회 조력지원을 통해 배분기관 선정 및 관리
- **지원내용** 결식어린이들을 위한 방학 중 급식지원
- **선정배경** 실제 장터 기부금의 지원이 필요한 재정지립도가 낮은 지방으로 사업신청 및 배분기관선정이 진행됨
- **특이사항** 급식지원사업 2차지원의 기관선정 및 배분은 여름방학(7월)에 진행예정
- **신청기관** 94개소 / **선정기관** 29개소  
경기 열린지역아동센터  
경남 한빛, 하동사랑, 소명, 인재지역아동센터  
경북 상주, 위즈애프터스쿨지역아동센터  
광주 신원, 봉선지역아동센터  
대구 다솜호산, 다사, 화동지역아동센터  
부산 송정, 미리내지역아동센터  
전남 에덴, 꿈나무, 금일, 군외, 은혜지역아동센터  
전북 한마음, 백두산, 고창, 소망, 으뜸지역아동센터  
제주 보목, 종달지역아동센터  
충북 진천, 이포봉양, 행복한지역아동센터

## 나눔테마2. 독서교육지원

고루하고 딱딱한 방식이 아닌 특별하고 재미난 책 읽기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책과 친해 질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작은도서관을 시작으로 '책 읽기'가 동네 곳곳으로 퍼져 마을 사람들이 함께 삶을 나누는 마을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한 사업비 지원 및 교육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독섬 아름다운나눔장터 기부금 총액과 사용내역

|           | 금액                | 비고       |
|-----------|-------------------|----------|
| 2013 기부금  | 47,873,261        | 총 49회 운영 |
| 예금이자      | 21,891            |          |
| <b>총액</b> | <b>47,895,152</b> |          |
| 급식지원      | 35,442,412        | 기금의 74%  |
| 독서지원      | 12,452,740        | 기금의 26%  |

급식 프로그램  
**35,442,412원**독서 프로그램  
**12,452,740원**

- **협의단체**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조력지원을 통해 배분기관 선정 및 관리
- **지원내용** 교양 결핍 어린이들을 위한 아동독서교육
- **신청기관** 18개소 / **선정기관** 16개소(민간 14개소 / 공립 2개소)

| 권역   | 배분기관           | 프로그램 명                         |
|------|----------------|--------------------------------|
| 강동구  | 웅기종기 작은도서관     | 웅기종기로 놀러와                      |
|      | 작은도서관 함께 크는 우리 | 책과 함께 떠나는 우리 마을 보물탐험대          |
|      | 천일 어린이도서관 웃는 책 | 초록마을 초록지킴이                     |
| 관악구  | 꿈마을 도서관        | 꿈마을 도서관에서 '함께 꾸는 꿈, 함께 자라는 꿈'  |
| 금천구  | 책읽는 마을 작은도서관   | 책읽는 마을 작은도서관의 어린이 독서동아리 활성화 사업 |
|      | 은행나무 어린이도서관    | 왁자지껄 신나는 도서관                   |
|      | 청개구리 작은도서관     |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
| 도봉구  | 생글 작은도서관       | 이야기가 있는 서울 공원탐방 / 어린이 건축교실     |
|      | 작은도서관 '책읽는사람들' | 우리동네 도서관 알리기                   |
| 동대문구 | 꿈틀 어린이 도서관     | 함께하는 즐거운 도서관                   |
| 마포구  | 와글와글 작은도서관     | 우리 손으로 만드는 책마을                 |
| 서초구  | 우면 SH 작은도서관    | 함께하는 우리 마을 도서관                 |
| 성동구  | 책읽는 엄마 책읽는 아이  | 어린이 인문학교 '나는 사람입니다'            |
| 성북구  | 곰세마리 어린이도서관    | 책과 함께                          |
| 송파구  | 이사랑 나눔도서관      | 책속의 세계, 세계 속의 도서관, 도서관 속에 우리   |
| 중구   | 어린이도서관 느티나무    | 애들아! 참새방앗간으로 모여라, 신나게 놀자!      |

## 네팔 아름다운도서관

## 아이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도서관 이야기

아름다운가게 나눔사업팀 김보람간사

아시아 지역 주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2009년 네팔 1호 도서관을 시작으로 필리핀까지 확대 된 아름다운 도서관. 아름다운가게는 교육과 문화의 기회에서 소외된 아시아 지역에 도서 및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 냅니다.

## 아름다운도서관 건립현황

- 1호 2009년 네팔 누와코트 주
- 1호 2012년 네팔 다델두라 주 (with 넥슨)
- 3호 2013년 네팔 꺼일리리주 (아름다운가게 후원이사회)
- 4호 2013년 네팔 꺼일리리주 (with 싱글즈)
- 5호 2013년 네팔 꺼일리리주 (with EBS)
- 6호 2014년 필리핀 몬탈반 지역 (2014년 상반기 오픈 예정)
- 7호 2014년 네팔 나왈파라시 지역 (2014년 상반기 오픈 예정)





### 싱글즈, EBS와 함께 하는 नेपाल의 아름다운도서관

2014년에는 싱글즈와 EBS의 지원으로 नेपाल의 극서부 지역에 각각 4, 5호 도서관을 오픈 하였습니다. नेपाल 내 가장 열악한 계급인 달리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극서부 지역은 지역적 한계로 교육, 경제, 문화 등의 기회에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또한 평야 지역인 이곳은 매년 수해로 고통을 겪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이들은 도서관을 통해 미래를 위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 필리핀 재이주 정착지에 아름다운 씨앗을, 아름다운도서관 6호

필리핀 마닐라 근교에는 자연재해, 화재, 도시 계획 등으로 도시 빈민들이 이주해 형성된 '재이주 정착지'가 많습니다.

#### 아름다운도서관이 건립 될 지역 Southville(사우스빌)

도서관이 건립 될 Southville지역은 약 8,000가구, 4만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시 빈민들이 대거 이주하여 큰 지역을 형성하자, 지역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전기, 물과 같은 기본 인프라에서부터 교육, 병원 등 사회서비스 시설 부족 등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 열악한 교육 환경

특히 지역 내 일자리 부족으로 마닐라 시내에서 일을 하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가정 해체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가정해체의 제 1피해자는 아동들입니다. 학교, 도서관 등 기본 교육 시설 부족으로 학생들은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

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시설 부족으로 한 학급이 4 번씩 돌아가며 수업을 해야 해서 하루에 수업을 4시간 밖에 받지 못합니다. 도서관 터 바로 옆에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 3,000명의 학생을 단 30명의 교사가 돌보는 등 전반적으로 교육시설이 매우 열악합니다. 한 교실에 약 60~90명의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며, 때론 학생들이 앉을 의자가 없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또한 학교 내 전기 수급에도 문제가 있어, 전기 없이 수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지역 내 고등학교는 한 곳뿐이고, 약 1,000명의 학생들이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열악한 상황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두 곳 모두 도서관 시설은 충분하지 않으며, 학생들이 볼 만한 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 아름다운도서관을 통해 지역에 희망을

현지에서 지역 아동의 학습지도 과정을 통해 이 지역 아이들의 읽기 능력과 이해 능력이 타 아동에 비해 많이 뒤쳐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도서관이 생긴다면, 책을 읽는 습관도 기르고 도서관 책과 컴퓨터를 이용해 학습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필리핀 도서관은 지역의 필요성에 맞게 아동 보호센터의 역할 등을 고려하며 2014년 상반기 내 건립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동 대상의 방과 후 교실, 성인 대상의 컴퓨터교실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단지 책만 빌려주는 도서관이 아닌 교육의 창구로 운영될 도서관을 꿈꾸고 있습니다.



#### 파르비나(22세) / 도서관 이용자

저는 22살이고 커너러(Kanara)학교 8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8학년 치고는 나이가 좀 많죠? 작년에 학교를 그만 둔지 7년 만에 교장 선생님께서 집으로 찾아오셔서 저희 어머니를 설득해주셨고, 그 결과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같은 반 친구들은 저보다 7살이나 어리지요.

아버지는 꺼머야(Kamaiya)\* 출신입니다. 저희 가족 모두는 지주를 위해 하루 종일 일해야 했어요. 꺼머야가 법적으로 없어진 후, 아주 작은 집에서 9명이 함께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7년 전, 제가 6학년이었을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저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공부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어요. 마을 친구들이 등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부럽기도 하고, 학교에 정말 가고 싶었지만 가정 형편상 그럴 수 없었죠.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도 해야 하고, 돈도 벌어야 했으니까요. 저녁 시간에 공부를 하고 싶어도 집에 전기가 없어서 불가능 했어요.

어려운 형편이지만, 가족들이 저를 도와준다면 저는 꼭 졸업을 하고 싶어요. 졸업을 하고 SLC 시험(한국의 수능과 같은 시험)에 합격하면, 더 나은 직업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방과 후 교육에도 참여할 수 있고 다양한 책도 마음껏 읽을 수 있고, 이제 책을 집으로 가져가서 읽을 수도 있어서 정말 좋아요. 컴퓨터를 직접 만져 본 것도 처음이었어요.

\* नेपाल 극서부 지역에는 강제 노역의 유산이 있습니다. 농토가 없는 사람들이 지주를 위해 농노 생활을 했던, 꺼머야(Kamaiya)가 그것입니다. 부모가 꺼머야이면 자식도 카마라리(Kamalarhi)가 되어 아동 노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2008년도 꺼머야 제도가 법적으로 철폐되었지만 프리드 꺼머야(Freed Kamaiya)들은 여전히 빈곤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 나마스떼겐지스 프로젝트

## 가난과 홍수에 맞서는 지속가능한 자립 지원

아름다운가게 나눔사업팀 황현이팀장

아름다운가게가 2007년부터 지원한 나마스떼겐지스 프로젝트가 많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또한 나마스떼겐지스는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자조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로 힘을 합쳐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지속 가능한 자립 지원 프로젝트입니다.

네팔 히말라야에서 원류가 시작하는 갠지스강은 네팔 남부, 인도, 방글라데시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이 되기도 하지만 매년 예고 없이 덮치는 큰 홍수로 너무나 많은 것을 빼앗아 갑니다. 특히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은 연중 3개월 이상의 홍수기간 동안 속수무책으로 가축이나 농작물, 심지어 소중한 가족을 잃습니다. 아름다운가게의 나마스떼겐지스 프로젝트는 사람들이 재난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홍수발생 시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농업기술 및 종자, 가축 지원 등을 통해 홍수 기간뿐만 아니라 연중 소득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사업지역

네팔 극서부 지역 다일레크, 수르켓, 다멜두라 주 27개 마을, 45개 농부 그룹, 1,315명 여성  
방글라데시 하오르(습지지대) 및 차르(강 중앙의 섬) 지역 및 남부 해안지역 225개 커뮤니티

## 사업내용

네팔 농업협동조합 조직 및 지원 / 농업기술 지원 및 사업 개발 / 캠페인 및 어드보커시  
방글라데시 커뮤니티 재난대비 시스템 구축 / 안전한 식수 및 위생시설 지원 / 생계수단 개발 지원 / 여성리더십 개발 및 캠페인

나마스떼겐지스 프로젝트 2013 지원규모 **91,913,307 원**



## 하우지 보스르 (42세)

예전에는 옷이 단벌이어서 한 번에 빨아 입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가난했으나, 아름다운가게의 지원으로 작은 행상을 꾸리게 되면서 가족의 생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해 남편과 두 곳의 이동가게를 운영하며, 작은 발을 사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 노부부 가정

아름다운가게 지원으로 지반을 높이면서 이제 홍수가 나도 안전한 곳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쉐파리 배금 (25세)

남편을 잃고 어려운 형편에서 홀로 아이 셋을 키우고 있던 스물 다섯 살의 쉐파리씨는 아름다운가게의 암소 지원을 통해 다행히 지금보다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000타카에 산 송아지가 자라 이제 19,000타카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으며, 나중에는 이 소를 팔아 작은 땅을 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달리 배금 (65세)

아름다운가게에서 받은 젖소의 우유를 판 돈이 가게의 주 소득원이며, 손자·손녀들도 우유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방글라데시 건물붕괴사고 긴급지원

## 사람을 살리는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하여

아름다운가게 나눔사업팀 황현이팀장

아름다운가게 긴급구호는 신속한 지원과 현장 전문가 지원, 지속가능한 복구를 테마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가게는 2014년에도 '스라마 순딜(아름다운 일자리)'을 통해 피해자들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찾아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2014년 5월, 진도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사고처럼 초기 대응만 잘했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발생한 재난사고로 인한 고통은 더욱 크고 오래갑니다. 2013년 4월 방글라데시에서 불법으로 증축된 8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서 일하던 수 천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건물주는 도망쳤고, 당국은 늑장 대처했으며 구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서 부상자들이 병원으로 호송되거나 치료를 받는데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고, 심각한 장애와 후유증을 갖게 되었고 일자리마저 잃은 채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가게는 이 중 지원을 가장 받지 못하거나 한부모 가장 및 생계수단이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이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먼저 사고 발생 직후, 긴급조사팀을 만들어 지원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긴급의료비·생계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시달리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2차 심리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중 건강상태가 호전되고, 자립 의욕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과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복구를 돕고 있습니다. 사고 후, 일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지만 아름다운가게의 지원으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사회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긴급모금에 정성을 모아주신 기부천사님들, 참 고맙습니다.



로지나 베굼(25세)

사고 당시 이틀간 고립되었던 그녀는 팔을 잘라야만 탈출할 수 있다는 구조요원의 말에 스스로 팔을 자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고 후 6개월이 지나고, 로지나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몸은 성치 않고 아이와 자신을 보살피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팔이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쉽지 않고, 벌이는 보잘 것 없었지만 내 힘으로 다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이 나의 존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응원해 주세요."



리나 악터(18세)

리나는 라나플라자 내 뉴웨이브 공장에서 일했던 열 여덟 살의 소녀입니다. 당시 발생한 사고로 인해, 같이 일하던 사람 중 단 세 사람만 살아남고 모두 죽었다고 합니다. 리나는 건물이 무너지면서 생긴 공간에 운 좋게 갇히게 되어 목숨을 건졌지만 아무도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해, 컴컴한 암흑 속에서 시체에 둘러싸여 한없이 구조만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당시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았지만 부모님이 모두 편찮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병원생활조차 힘들었습니다. 결국 제대로 치료를 받지도 못한 채 한 달 만에 퇴원했습니다. 연로한 아버지도 신장염으로 인해 일을 매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계를 책임져야만 하는 리나에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리나가 지금 절실히 원하는 것은, 때늦은 치료보다 꿈을 이루기 위한 '공부'입니다. 하지만 지금 형편에서는 돈을 벌어야만 합니다. 아직 사고 이야기가 나오면 엉엉 울고 사고 충격으로 인해 단기기억상실증 증세마저 보이는 리나, 열 여덟 살 소녀에게 '꿈'이라는 것은 부질없는 욕심에 불과할까요?



무하마드 샤밌(25세)

무하마드 샤밌은 25세로, 3살 아이의 아버지이자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모두 공장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내는 팔에 부상을 입었고, 샤밌은 다행히 몸은 회복했지만 당시 사고로 인한 심한 우울증 탓에 일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부부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다시 일어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배워서 작은 가게를 꾸려보려는 것이 꿈입니다.

2013년 방글라데시 건물붕괴사고 긴급구호 지원내역

■ 금액 80,586,936원

## 필리핀 태풍 하이옌 긴급구호

## 역대 최악의 재난사고, 태풍 하이옌

아름다운가게 나눔사업팀 김보람간사

아름다운가게는 2013년 11월, 필리핀을 강타한 태풍 하이옌 피해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긴급구호 활동을 Eastern Samar(동사마르 지역)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한 가구당 6명이 약 2주간 섭취할 수 있는 식량 키트를 9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했습니다.



"신께서 우리를 돌봐주려고 당신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필리핀 하이옌 긴급구호 수혜자

매년 찾아오는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필리핀. 기후 변화로 인해 태풍 진행경로의 예측이 어려워지고, 전통적으로 태풍 피해를 받지 않았던 지역까지 태풍 영향권으로 들어왔습니다. Eastern Samar(동사마르)지역이 그런 지역입니다.

2013년 11월, 공식 사망자 6,155명을 기록하며 역대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되는 태풍 하이옌. 아름다운가게는 필리핀 동사마르 지역을 할키고 간 태풍 피해복구를 위해 긴급구호



를 진행하였습니다. 일단 필리핀 현지 파트너 단체와 함께 현지에서 가장 필요한 물품에 대한 1차 조사를 진행한 결과, '식량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해가 심각했던 동사마르 지역의 가장 취약한 9개 마을을 중점적으로, 한 가구가 2주간 섭취할 수 있는 식량 키트(쌀, 소금, 설탕, 통조림, 요리용 기름)를 총 1,003가구(6,018명)에게 지급하여 어업, 농업 등의 인프라가 모두 파괴되어 적절한 식량을 섭취할 수 없는 지역 주민들에게 긴급 식량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1차 지역 평가를 통해 피해가 심한 지역을 선별하였으며 한부모, 노인 및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 가구와 기거하던 집이 파괴된 가구,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 등을 선별하여 총 1,003 가구의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1차 피해지역 조사를 하는 동시에, 현지 파트너 단체는 동사마르 지역의 주도인 Boronga시에서 물품 구입을 위한 시장 조사를 한 후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구호물품은 지역 봉사자, 마을 위원회 등 다양한 마을 주민들의 참여로 현지에 배분되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건의함, 핫라인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배분과정이 계획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졌어요. 이러한 배분 시스템은 모든 배분 활동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배분 전 충분한 오리엔테이션으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었어요."

- 지역 센터 봉사자 Mrs. Gina Buno

매장 수익금의 1%를 적립한 제3세계 기금 5만불(한화 약 5,300만원)으로 진행된 긴급구호는 아름다운가게의 기부자, 구매자, 활동천사의 작은 힘들이 모여 필리핀 현지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인프라 복구, 생계수단 회복 등 큰 숙제가 남아있지만, 절망하는 대신 심각한 자연 재해 앞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피해자들의 모습에서 인간 내면의 강인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참여자 이야기

아름다운가게 최연소 기부자  
놀라운하루  
자원활동가



## 아름다운가게 최연소 기부자

## 만나고 싶었어요, 최연소 기부자 이아린 양!

아름다운가게 나눔사업팀 김내은간사

아름다운희망나누기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이웃과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의료비, 주거비, 생계비, 특기적성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임숙님은 아름다운희망나누기를 통해 아이 100일, 돌을 기념하여 아이 이름으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셨습니다.

## 우리 딸, 생애 첫 기부

아이 백일 때는 아이가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자라준 사실 그 자체에 감사했어요. 그런데 막상 아이를 키우다 보니 주변에 형편이 어렵거나 몸이 불편한 아이들을 보면, 결코 남의 얘기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생기면 그런 아이들을 위해 돕고 싶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마침 지인이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아름다운가게에도 '아름다운희망나누기'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 프로그램을 통해 아린이 이름으로 작은 금액을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아린이 돌 때는 남편이 돌잔치를 하지 않겠다는 소신이 강했어요. 그래서 잔치는 하지 않더라도 이 다음에 아린이가 어린 시절을 떠올렸을 때 행복해할 수 있을만한 이벤트에 대해 남편과 함께 고민하다가 또 다시 기부를 떠올리게 되었어요. 이렇게 부모인 우리가 먼저 아이 이름으로 기부를 시작한다면, 아이가 커서도 자기 스스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도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 기부 자체가 아린이에게도 분명 '좋은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니다.

## 아린이에 대한 기대와 소망

아직 부모로서 아린이에 대해 크게 바라는 것은 없어요. 다만 그저 건강하게 자랐으면, 그리고 나눔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이 사랑 받고 또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 우리 아린이가 그렇게 커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부모로서 역할을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니까요.

## 아름다운가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

사실 이렇게 인터뷰에 응하게 된 것도, 우리 가족의 나눔이 아주 작은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 된다면 누군가에게는 나눔의 씨앗이 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나눔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나눔으로 더 훈훈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아름다운가게에서 일하는 지인이 있어 아름다운가게를 더 익숙하게 잘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름다운가게가 헌 물품 기증을 넘어, 이러한 기부 사업을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저 역시나 그랬고요. 앞으로 아름다운가게가 국내외 기부 나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더 알려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소중한 나눔, 참 고맙습니다

세상에 나온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는 아름다운가게 최연소 기부자 이아린 양, 이날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머니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아린이는 이미 나눔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물려받고 있는 참 행복한 아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아린이가 부모님의 바람처럼 충분히 사랑 받고 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건강한 아이로 자라나길 기원합니다. 소중한 나눔, 참 고맙습니다.

## 놀라운하루

##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놀라운하루' 만들기

아름다운가게 나눔사업팀 김영연간사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놀라운하루'는 우리동네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카페, 병원, 식당, 학원, 빵집, 꽃집, 안경점 등 세상의 모든 가게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하루 수익금을 기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가게를 방문하는 모든 손님 또한 자연스레 나눔에 동참하게 되는 아주 뜻깊은 날이죠. 2013년 5개의 가게가 놀라운 하루에 참여하여, 총 923,870원을 '아름다운나눔보따리'에 기부해주셨습니다. 2013년, 더 많이 나누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한 희망의 가게들이 놀라운하루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 나눔을 실천한 단 하루! 그 여운은 아직도...

"놀라운하루를 통해 와인을 잘 모르던 사람들도 함께 할 수 있는 하나의 축제가 되었어요. 그저 하나의 와인으로 좋은 일에 동참 할 수 있다니, 말 그대로 놀라운하루입니다." - 조수민 소믈리에

교육과 출판 사업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취미와 교양강좌, 이벤트 등을 통해 와인 문화를 보급하고 있으며 건전하고 책임 있는 음주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마이시크릿셀라는 2013년 12월 14일 놀라운하루에 참여하여 당일 수익금 전액을 기부해주셨습니다.



- 가게명 마이시크릿셀라
- 위치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34-19번지
- 전화 02-514-1855



## 티테라피 축제날! 놀라운하루는 설레임 그 자체

"저희 티테라피 행랑이 많은 손님들께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선물로 드린 것 같아 참 행복해요. 앞으로 놀라운 하루에 참여하는 가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놀라운하루 파이팅!" - 이은경 대표

종로구 안국동에 위치한 티테라피 행랑은 다양한 차 종류를 선보이며 개인별 맞춤식 차를 마실 수 있어 내국인뿐만 아니라 특히 외국인에게 유명한 관광명소 중 한 곳입니다. 티테라피 행랑은 2013년 12월 7일 놀라운하루에 참여하여 당일 수익금 전액을 기부해주셨습니다.



- 가게명 티테라피 행랑
- 위치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6-1번지
- 전화 02-730-7507

## 그밖에 놀라운하루는...

2013년 가게를 방문하는 모든 손님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물하며 나눔으로 하나 된 가게입니다.



- 가게명 오오도리
- 위치 서울 마포구 상수동 93-103
- 전화 02-325-1369
- 업종 일본식 스킨카레 전문점



- 가게명 7시 23분
- 위치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337 신도림1차 푸르지오 1층 133호
- 전화 070-8247-7230
- 업종 여성 의류 판매점



- 가게명 카페 라온하제
- 위치 충청남도 공주시 번영3로 53 홍이빌딩 1층
- 전화 041-856-8080
- 업종 커피전문점



## 놀라운 하루 참여방법

우리 가게를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나눔을 실천 할 수 있습니다.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손님에게 선물해주세요. 놀라운하루는 희망의 시작입니다.

참여문의 아름다운가게 후원개발팀 02-2115-7244

## 자원활동가

## 자원활동 10년! 아름다운 시간을 나누다

아름다운가게 자원활동센터 김수미간사

아름다운가게에서 10년간 활동해오신 열일곱 분의 활동천사.  
10년간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해오신 열일곱 분의 아름다운 사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3년 12월 5일, 지난 10년 동안 아름다운가게와 함께한 자원활동가 열일곱 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다른 단체에서는 흔히 '자원봉사'라고 표현하지만 아름다운가게는 '자원활동'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웃을 도와주는 단순한 봉사의 개념을 넘어서 스스로 시민 '활동가'로 자신과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자발적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름다운가게 자원활동가들의 열정은 상근활동가 못지 않습니다. 매장을 직접 운영하고 수익 나눔, 자원활동가 교육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광주역점 강영희님



광주첨단점 김명순님



독립문점 김정연님



독립문점 오영순님



서초점 김경애님



상봉점 임현준님



서초점 김혜란님



서초점 오봉수님



서초점 이경희님



서초점 장원순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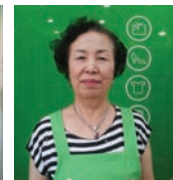
서초점 정귀옥님



서초점 최애련님



신대방점 이미순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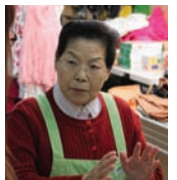
신대방점 정순옥님



안국점 김영애님



안국점 박정희님



안국점 우명옥님

정귀옥님은 자원활동가들이 운영하는 자립매장 서초점의 매니저이자 아름다운가게의 후원이사입니다. 2002년 이후 지금까지의 활동 시간은 무려 7,414시간. 일상적인 매장 운영과 행사 진행은 물론, 이제는 후배 자원활동가들을 위한 교육 강사로 5년째 활동 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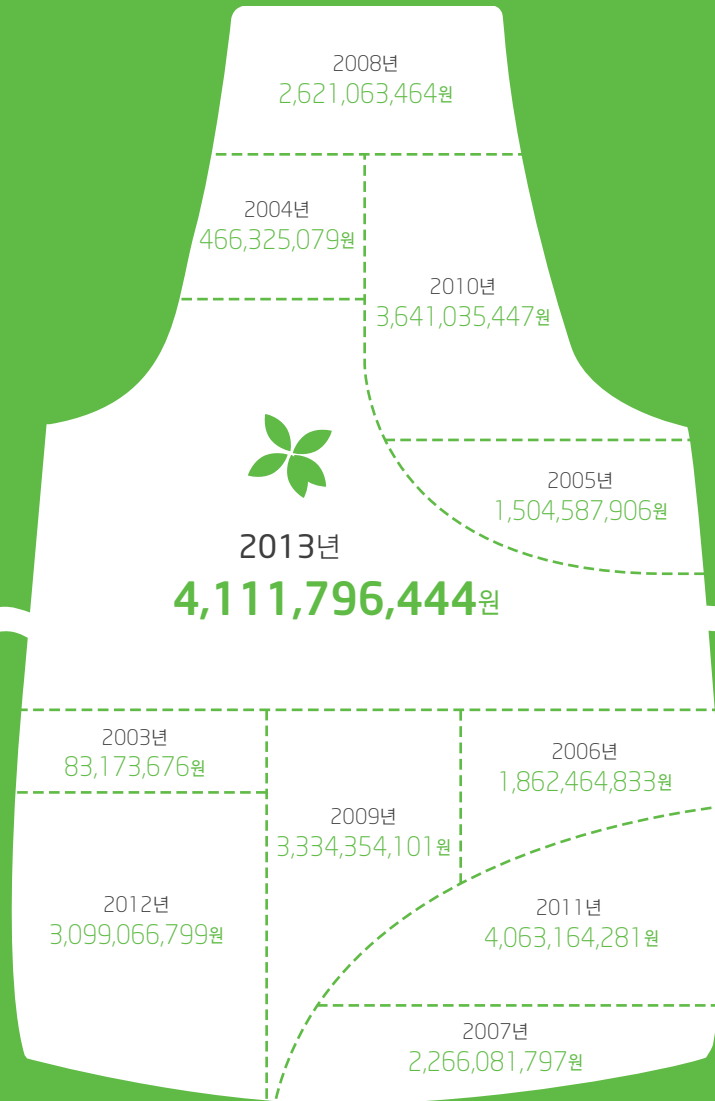
광주역점에서 활약하는 강영희님은 2003년 12월, 지역의 첫 아름다운가게 매장이자 광주첨단점이 문을 열자마자 자원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5,531시간 이상 활동에 참여했으며, 가게 수익이 우리 이웃들에게 제대로 배분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수익 나눔 실사단으로도 활동 중입니다.

아름다운가게 1호점인 안국점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정희님은 평소 쓰레기 줄이기나 분리수거와 같은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아 아름다운가게와 인연을 맺게 되었고, 2002년 10월부터 활동을 시작해, 현재 5,577시간 이상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가게 활동을 시작으로 병원, 학교, 복지관 등에서도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0년차 자원활동가들은 "나이 먹는 게 부끄럽지 않게 됐다", "자신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늘었고 항상 밝고 맑은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게 됐다"며 소감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성장하고, 뜻을 같이 함으로써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 열일곱 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생활 속 나눔을 위한 우리의 실천은  
11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1년간 아름다운가게 나눔 누적 총액 (2003~2013년)

270억 5,311만 3,827원



## 1. 아름다운가게가 잘 할 수 있는 경제자립 지원형 나눔

아름다운가게는 국내 사회적기업의 선두주자로서 경제 모델을 통해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는 개인 및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 2억 6,000만 원

뷰티풀펠로우

예비 사회적기업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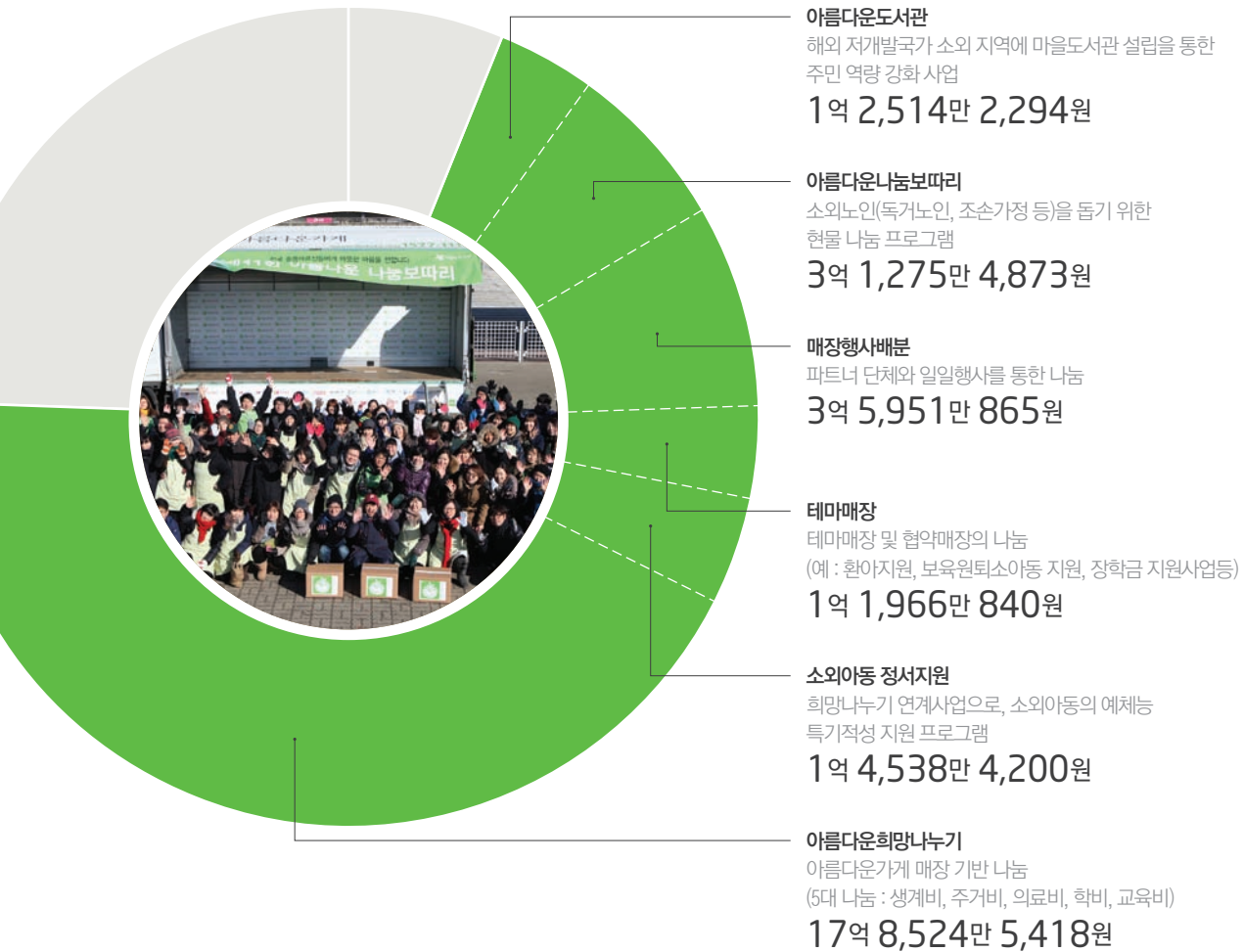
1억 3,735만 7,444원

공정무역 & 지식나눔

공정무역을 통한 자립형 경제모델 지원 및  
해외 NGO 등의 역량개발을 위한 지식 나눔

1억 2,556만 9,647원





## 2. 아름다운가게가 잘 알 수 있는 지역 밀착형 나눔

전국 120여 개의 매장·해외매장 및 커뮤니티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더 많은 소외이웃들이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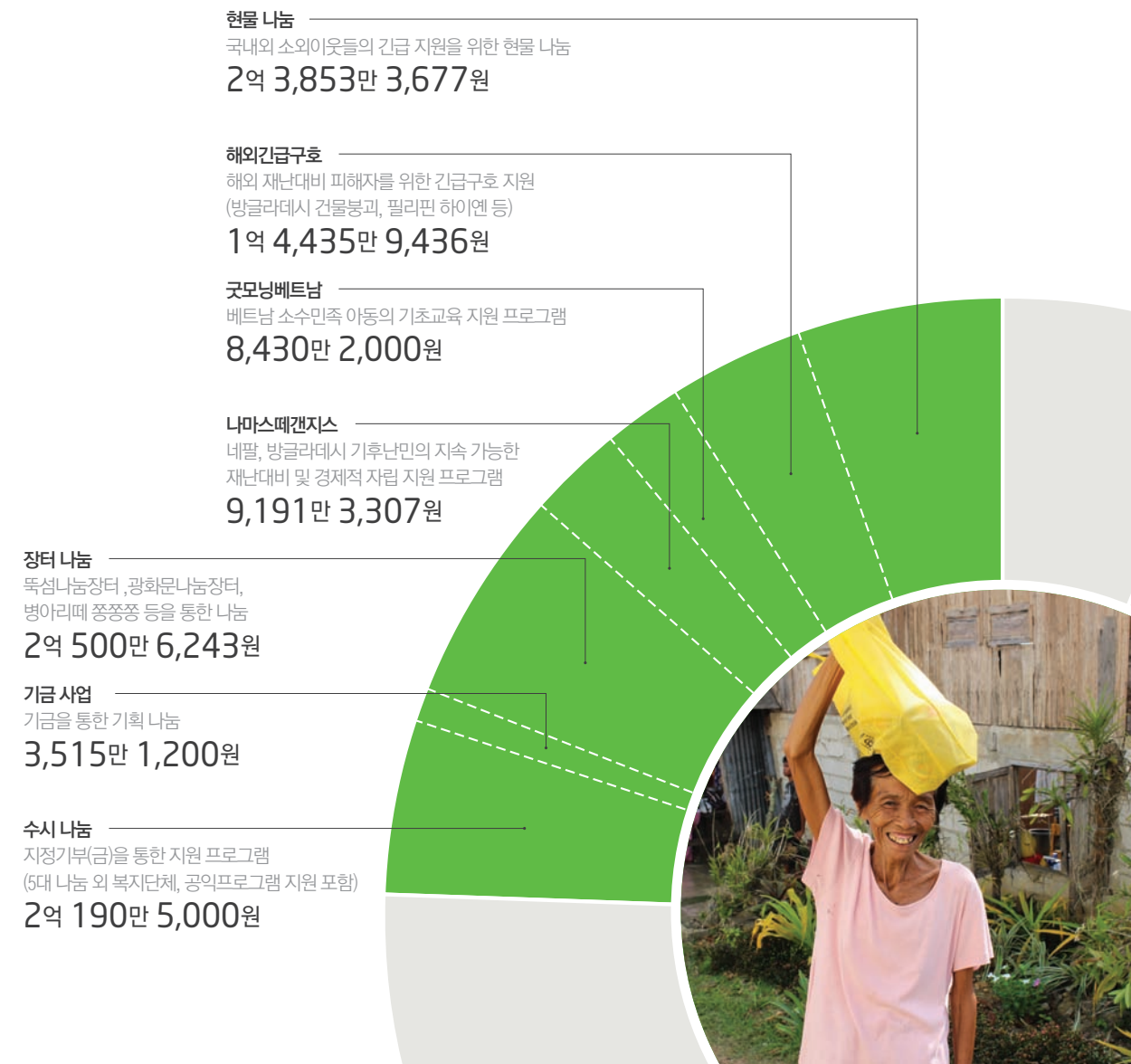
**약 28억 5,000만 원**



## 3. 아름다운가게가 잘 해야 하는 사회 공헌형 나눔

소외된 이웃들의 불안정한 생활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나눔, 해외 긴급 구호 지원 등 국내외 빈곤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약 10억 원**





## 아름다운가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자원활동가들의 특별한 시간 2013.8.21~2014.4.20

아름다운가게의 자원활동가들이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클래식 리사이클에 초대 받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늘 헌신적인 활동과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자원활동가들의 노고를 격

려하는 의미에서 <아트엔아티스트>와 <봄아트프로젝트>에서는 총 11회, 1,000석의 객석나눔을 실천, 감미로운 클래식을 통해 아름다운가게 자원활동가들에게 낭만과 열정을 선사했습니다.

### 아름다운아파트 기증 캠페인 2014.3.22~4.29.

삼성물산 래미안과 함께하는 아름다운아파트 기증 캠페인이 강서CS사무소를 시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래미안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캠페인은 매주 토요일 서울, 경기지역 16개 단지 내에서 진행된 1일 아파트 기증 캠페인으로 총 5,033세대가 참여하여 62,000점의 소중한 물품이 기증되었습니다. 다채로운 이벤트와 함께 진행 된 이번 캠페인은 서로 왕래가 쉽지 않은 현대 생활 속에서 이웃 주민들이 얼굴을 맞대며 즐겁게 나눔을 실천, 건전한 아파트 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 사회적기업창업 전문과정 실시 2013. 5.22~7.10

사회적기업센터가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최 하에 진행하는 <2013 사회적기업 창업전문과정>을 5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매주 2차례 안국동 그림담집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름다운가게가 10년 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사회적기업 창업에 꿈꾸는 성인 32명을 대상으로 강의와 실습, 워크샵, 그리고 사회적기업 현장 방문 프로그램 등을 바탕으로 전수 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기존 사회적기업가들이 멘토링단을 구성하여 시장 및 트렌드 분석, 사업계획서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는 물론, 이수 후에도 창업에 필요한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사후관리에도 충실한 가이드 역할을 하였습니다.



### 열일곱 분의 자원활동가 감사패 수여 2013.12.5

10년 동안 아름다운가게와 함께한 자원활동가 열일곱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기념식이 아름다운가게 본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간 아름다운가게의 성장을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수익나눔, 자원활동가 교육 등에도 적극

적으로 참여한 열일곱분의 활동천사님께 감사패를 전달하였습니다. 감사패 수여식 이후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10년간 현장에서 경험한 생생한 이야기를 나누며 자원활동가들의 역량과 리더십에 대해서도 함께 소통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 삼선교점, 아름다운 인연 2014. 3.26

아름다운가게 삼선교점은 개점 11주년을 맞이하여 보헤미안 옷 가게 김경옥 사장님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경옥 사장님은 보헤미안 옷 가게를 정리하며 의류 및 잡화 상품 전량을 아름다운가게 삼선교점에 기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선뜻 상품 전량을 기증해 주신 이유

는 5년 전, 녹록하지 않은 살림에 설상가상으로 집에 물이 차, 큰 수해를 겪고 실의에 빠져 있을 때, 아름다운가게의 수익나눔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김경옥 사장님은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아들이 대기업에 취업을 하며 점차 생활기반이 나아졌고, 힘들었을 때 받았던 도움을 다시 이웃을 위해 베풀자는 아들의 제안으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라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나눔과 순환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어 그 지역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매장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 볼 수 있었습니다.

### 아름다운가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 수상 2014. 3.27

아름다운가게가 서울 여의도 F&T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광고주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주최하는<제22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번 수상작(아름다운 스토리)는 광고회사 맥켄에릭슨과 함께 진행하였으며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운동화, 자전거, 책 등의 아이템을 활용하여 친화적이고 감성적인 소구방식으로 접근, 생활 속에서 쉽게 나눔을 실천하자는 메시지를 전달 하였습니다. 특히, 이 광고상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소비자들이 직접 현장심사를 통해 좋은 광고상을 선정하여 의미하는 바가 크며, 더불어 사회적기업으로는 아름다운가게가 유일하게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 <2014년도 상반기 서울교육 인증기관>으로 선정 2014. 4.10

아름다운가게가 나눔 교육기관으로는 최초로 <2014년도 상반기 서울교육인증기관>으로 선정되어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인증패를 받았습니다. 아름다운가게의 나눔교육 프로그램은 나눔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 할 수 있도록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진과 함께 참여학습법(PLA기법)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학생들의 수준별로 재미있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학습 이후에도 주도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인증 획득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나눔을 재미있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Sustainable Upcycle Art & Design> 전시회 2014.4.3~29

에코파티메아리가 지구의 달을 맞이하여 롯데백화점(청량리점) 8층 롯데갤러리에서 업사이클디자인 브랜드, 작가들과 함께 <Sustainable Upcycle Art& Design>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는 작년, 11월에 열린 업사이클, 첫번째 조각'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전시회로, 업사이클 제품을 보다 많은 시민들이 친숙하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 데님이 내님을 만나는 봄날 2014.4.11~26



에코파티메아리가 봄맞이 신상품(데님 가방2종)출시기념 이벤트 <데님이 내님을 만나는 봄날>을 진행하였습니다. 신뜻한 봄을 맞이하여 새롭게 선보인 에코파티메아리 데님 가방 2종은 데님 토트백팩(판매가 54,000원)과 데님버클 백팩(판매가 49,000원)으로 강하고 질긴 내구성을 지닌 데님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며 이는 아름다운가게 기증품 중 가장 많이 기증되는 청바지를 소재로 제작하여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인감 전체를 활용하여 밝고 산뜻함은 물론, 스티치의 디테일을 그대로 살려 빈티지함도 동시에 느낄 수 있으며 태블릿 PC를 수납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과 사이드 지퍼가 있어 이동을 하면서도 음악을 듣거나 쉽게 물을 꺼내 마실 수 있는 등 실용성까지 갖춰 데일리룩으로도 손색이 없는 백팩입니다. 신상품 출시 이벤트는 아름다운가게 매장(서울 11지역, 경기 5지역, 광주전남지역 1지역)에서 진행되었으며 데님 가방 3종(신제품 2종 / 기존제품 1종) 중 하나를 구매 시 에코파티메아리의 가족필통을 증정하였습니다.



## 매장 이전개점

**고양화정점(구 고양행신점)** 2013.10.15

**A**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 29번길 40(화정동)  
**T** 031-970-8558

**상봉점(구 휘경점)** 2013.10.23

**A** 서울 중랑구 중랑구 망우로 267(상봉동) 임송빌딩 1층  
**T** 031-970-8558

**원주일산점 (구 원주무실점)** 2013.11.1

**A** 강원 원주시 원일로 151(일산동)  
**T** 033-744-1202

**평택안중점** 2014.1.18

**A**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 140, 1층  
**T** 031-686-6833

**군포점** 2014.2.20

**A** 경기 군포시 고산로 599 (산본동 1101) 군포문화예술회관 내 수리홀 지하 1층  
**T** 031-395-3004

**방학점** 2014.2.28

**A**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578 (창동) 미화빌딩 1층 6호  
**T** 02-3492-0657

**광주용봉책방** 2014.4.25

**A**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203 (용봉동) 4층  
**T** 062-514-8975

**안국점** 2014.5.24

**A**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21  
**T** 02-736-0660

**목포원도심** 2014.5.24

**A** 전라남도 목포시 호남로 68길 36 보해상가 1층  
**T** 061-244-8975



## 놀라운 자전거

6개월 동안 함께 달린 자전거  
 친구들이 제 멋진 몸에 깜짝 놀라더군요  
 자, 당신도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해보세요

안남동 김성주씨 스토리

